

Aēsop.

안녕하세요, Future Fables by Aesop입니다. Aesop의 Future Fables는 Literary Hub와 함께하는 어른을 위한 우화 시리즈입니다.

2,5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현자 이솝의 우화는 현대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이솝이 2022년에 우화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고자 수상 경력을 지닌 작가들이 현대에 맞게 우화를 재해석했습니다. 환상적인 캐릭터와 아름다운 감동을 담은 이 단편들은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이끌어주고 더 조화로운 삶을 위한 청사진이 되어주거나 잘못된 늪에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 우화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한 음료도 괜찮을 것 같네요. 대화와 성찰, 마음의 평화를 이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잠은 모두 그녀의 것>인데요. 이 글을 쓴 가와카미 미에코는 여러 상을 받은 작가로, 최근에는 소설 <헤븐>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하네요.

오늘의 우화를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다시 본 것은 초겨울이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들이 떠난 이후로 그들 누구도 보지 못했다. 완벽한 서프라이즈. 이게 몇 년 만인지? 가장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를 기준으로 40년만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 테이블에 둘러앉아 때로는 차를 마시고 때로는 산길을 산책하고 웃고 침대에 누워 그냥 수다를 떨고 누군가 울면 위로를 하거나 서로 농담을 하곤 했다. 내 인생의 다른 시점에 그들 각각을 따로따로 만났고 그들 각각은 자신의 방식으로 그들의 시간에 사망했다. 그들의 공통점이라면 더 이상 여기에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간동안 나는 내 나름대로 그들 각각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결함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소녀들은 내 꿈 속에 모두가 한 세트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나는 “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만난 곳이 훨씬 더 생생했고 잠들었을 때 꾸는 일반적인 꿈과는 다른 일련의 규칙을 따르는 곳이었다. 모든 것이 현실보다 더 명확하고 진지했다. 나는 정말로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우리 주변의 색과 빛은 모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롱했다. 다른 이들이 가고 내가 눈을 뜬 후에도 내 곁에 머물며 현실의 기억만큼이나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치 그들과 함께 정말로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동시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그들은 모두 평면적이고 생기가 없고 완전히 회색이어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내가 이 무리와 함께 있을 때, 할머니, 엄마, 편집자, 중학교 동창, 사촌, 내 강아지 ‘하나’와 ‘산’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처럼 정말 즐거웠다. 그들 모두는 내가 마지막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고, 비록 세대와 종이 다르고 살았던 장소도 달랐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항상 멋진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물어봤다. 묻기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당신이 죽은 건 알고 있어? 물론이지, 당연히 알고 있지, 그들은 마치 내가 왜 굳이 묻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다. 누군가에게 이번 주말에 큰 태풍이 온다고 말하면 그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분명 우리를 빗겨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나는 작은 사고를 당했고 즉사했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시간을 그들과 보냈다.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죽음은 조금도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사고와 질병은 어때? 라고 당신은 말한다. 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은 죽음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픔과 죽음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거리—가 있고, 우리 모두가 통과하는 그 공간은 실제로 쾌적하다. 그 전까지 느낀 고통은, 글썽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다. 어쨌든, 그 시점에 나는 그 무리의 정식 일원이 되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쪽 세계에는 잠이란 게 없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도 잠을 자지 않고 나도 그렇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잘 알고 지냈던 다른 사람을 함께 방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정말 놀랐지만 우리가 계속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오래 전 내가 했던 바로 그 질문을 했다. 네가 죽은 걸 알고 있니? 물론이지, 우리 알고 있어. 그건 정말 별일 아니어서 우리는 다른 할 말이 없었다.

마침내, 우리는 그 소녀들 중 한 명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정말 잠든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이쪽 세계에 너무 오래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다. 우리 심장이 쿵쾅거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는 기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그녀는 우리 앞에 있었지만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가 눈꺼풀을 꼭 닫은 채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그녀 주위에 원을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아주 평화로워 보였고 몸을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다. 우리 중 누구도 잠이 무엇인지, 수면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우화는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죽음을 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길러보라고 합니다. Future Fables by Aesop은 Literary Hub가 함께합니다. 주제곡 작곡은 딘 블런트, 팟캐스트 믹싱, 디자인, 마스터링은 Unit의 한나 웨스터였습니다.